

12.31(수) 조간 부터 사용해 주십시오



보도자료

▶ 노사협력정책과 김 왕 과 장
이태훈 사무관

▶ 2008. 12.29 배포
▶ 총 20 쪽

T E L : 2110-7326
F A X : 02) 503-9556

“2009년 위기극복 위한 노사의 양보교섭 확산 전망”

- * 『사 : 고용안정, 노 : 임금자제』 산업현장 노사 87.3% 찬성
- * 내년도에 바람직한 임금수준은 『'08년 대비 동결 또는 삭감』 (노사의 65.0%)

□ 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은 2008.12.16~12.26 리서치 전문기관인 (주) 메트릭스코퍼레이션에 의뢰해 전국 100인 이상 사업체 노·사 총 1,000명(노사 각 500명씩)을 대상으로 『2009년도 노사 관계 전망 및 정책수요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개요

- 조사기관 및 기간 : (주)메트릭스코퍼레이션, '08.12.16~12.26(11일간)
- 조사대상 : 전국 100인 이상 사업체 인사노무담당자 및 노조간부(근로자 대표)
- 조사방법 : 전화조사
- 표본추출 : 업종별·규모별로 다단계 층화 계통 추출
- 유효표본 및 표본오차 : 노·사 각 500명씩 총 1,000명 (95% ± 3.1%p)

□ 조사결과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조사결과 주요 내용 요약

<1> '09년도 노사관계 전망

□ ('09년도 노사관계) 노사 모두 '08년에 비해 불안할 것으로 전망(전체 58.8% : 노측 66.2%, 사측 51.4%)

* 주요 업종 중에서는 금융보험, 교육서비스, 전기·가스·수도 업종 등에서 노사관계가 불안할 것이라는 전망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음

○ (불안 전망 이유) 노사 모두 “경기침체에 따른 구조조정 등 고용불안 심화”(1순위), “임금체불로 인한 노사갈등”(2순위), “복수노조·전임자 등 노사관계 법개정을 둘러싼 노사정 갈등” (3순위), “비정규직 문제를 둘러싼 노사갈등”(4순위)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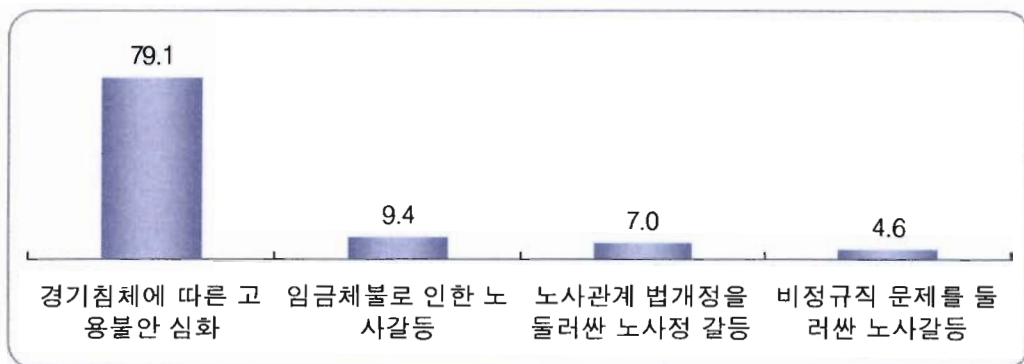


그림 1) '08년 대비 '09년 노사관계를 불안할 것으로 전망한 이유 (전체)

* 주요 업종별로는 전기·가스·수도, 건설업, 운수·통신, 제조업 등에서, 사업체 규모별로는 소규모 기업일수록 '고용불안 심화'를 상대적으로 더 큰 불안요인으로 전망

☞ 공공부문 선진화(전기·가스·수도 등), 건설·수출경기 침체 등으로 인한 고용불안, 특히 중소기업의 고용불안 문제가 '09년 노사관계 핵심 불안요인으로 드러남

- ('09년 경제상황) 노사 모두 '98년 IMF 시절 보다 경제상황이 더 어려울 것으로 전망(전체 68.0% : 노측 73.0%, 사측 63.0%)
- (고용불안 전망) 고용불안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것이라는 데에 노사 모두 동의(전체 83.3% : 노측 82.6%, 사측 84.0%)
- (파업 전망) '08년 대비 '09년도 파업건수가 비슷하거나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전체 69.7% : 노측 70.8%, 사측 68.6%)

< 2008년 대비 2009년 파업 전망 (조사대상별) >

(단위 : %)

구분	사례수	증가할 것			비슷할 것	감소할 것		
		매우	조금	소계		조금	매우	소계
전체	1,000	8.9	26.0	34.9	34.8	26.6	3.7	30.3
노측	500	10.2	26.8	37.0	33.8	26.6	2.6	29.2
사측	500	7.6	25.2	32.8	35.8	26.6	4.8	31.4

* 주요 업종 중에서는 금융보험, 전기·가스·수도, 건설업 등에서 파업이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이 타 업종에 비해 높았음

☞ '09년에는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종래의 임금인상 관련 노사갈등보다는 고용조정, 임금체불 등을 둘러싼 노사분규가 빈발할 전망

<2> 경제위기 상황 下 노사정의 역할

- (노사 상호 양보) 사측은 고용안정에 힘쓰고 노측은 임금인상을 자제하는 등 상호 양보가 필요하다는 점에 노사 공히 동의 (전체 87.3% : 노측 85.2%, 사측 8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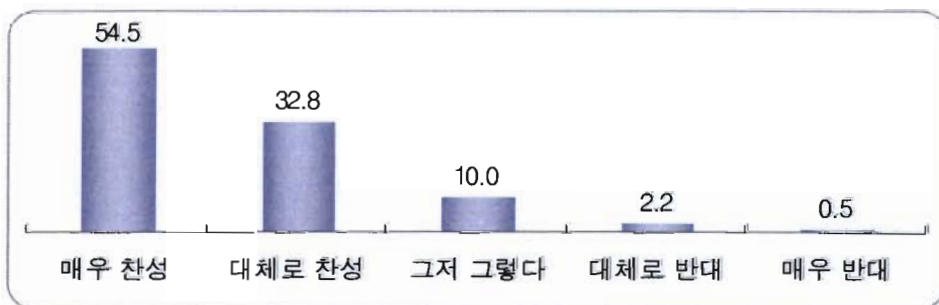


그림 2) 사측(고용안정)과 노측(임금인상 자제)의 상호 양보 필요성 (전체)

□ ('09년 임금수준) '08년 대비 동결 또는 삭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우세(전체 65.0% : 노측 60.0%, 사측 7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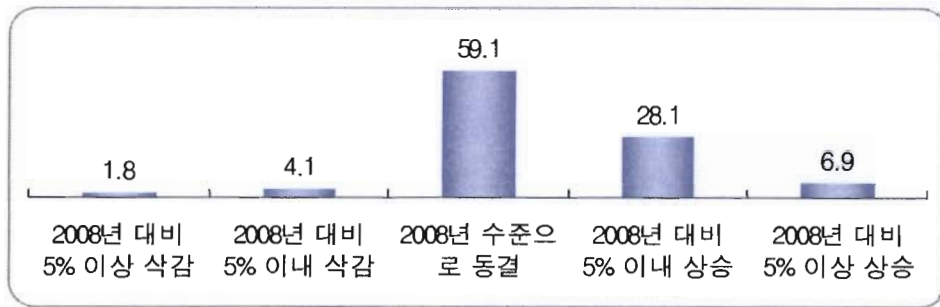


그림 3) '09년도 바람직한 임금 수준 (전체)

- * 주요 업종별로는 건설업, 운수·통신업종 등에서 동결 또는 삭감의사가 강한 반면
 - 전기·가스·수도, 금융보험 업종은 타 업종에 비해 임금 인상 의사가 높음

☞ '09년에는 전반적으로 노와 사가 따로 없이 상호 양보, 고통분담을 통해 [위기극복을 위한 기업 살리기]에 동참하는 분위기 확산 전망

□ (기업 유지 곤란시 바람직한 기업 대응방식) 노사 모두 ① 근로시간 단축, ② 무급 순환 휴직과 동시에 직업훈련 실시, ③ 명목임금 삭감, ④ 근로자 감원 순으로 바람직하다는 견해

< 기업유지 곤란시 바람직한 대응방식 >

(단위 : %)

구분	계	근로시간 단축	무급순환휴직 + 직업훈련	명목임금 삭감	근로자 감원
전체	100.0	37.9	28.7	18.8	14.6
노측	100.0	38.4	30.0	20.0	11.6
사측	100.0	37.4	27.4	17.6	17.6

☞ 노사 모두 근로자 감원이라는 단기적 시계에서 벗어나 근로시간 단축, 무급 순환휴직을 활용한 직업훈련 실시 등 중·장기적 시계로 변화 전망

- (노사관계 선진화 중요성)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정부 정책에 대한 노사의 공감대가 높은 가운데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노사 모두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인식

<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세부정책별 중요도 인식 >

(단위 : %)

세 부 정 책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		
	전체	노측	사측
불합리한 노사관행 개선	76.0	79.2	72.8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작업장 혁신	68.8	73.0	64.6
사업장·지역단위 노사협력 활성화	66.5	71.0	62.0
효율적인 분규예방 및 조정서비스 제공	66.4	69.4	63.4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	66.0	63.2	68.8

- (노사정의 역할) 노사 모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

* 한편 사측 스스로 임금인상 자제 등 노측의 노력에 비해 근로자 고용 안정 보장, 투자 활성화 등 사측의 노력이 숙선되어야 한다는 의견

<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의 역할과 책임 >

(단위 : %)

구분	계	정부의 노력 (노사협력촉진, 직업능력개발 지원 등)	사측의 노력 (고용안정 보장, 투자활성화 등)	노측의 노력 (임금인상 자제, 생산성 향상 등)
전체	100.0	51.8	32.2	16.0
노측	100.0	52.6	33.4	14.0
사측	100.0	51.0	31.0	18.0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 등 정부의 노력과 아울러 경영계의 숙선수범 중요

- 한편 이채필 노사협력정책국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일선 노동 조합도 경제위기 극복과 기업을 살리는 일에 함께 동참할 의사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평가하면서
 - “2009년도에는 최근의 금융·실물부문 위기가 노동시장에도 본격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위기 상황에 대응한 특단의 고용안정대책으로 취약 근로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면서
 - 당면한 위기극복을 넘어 선진 일류국가로의 재도약을 준비 하기 위해 노사의 지지를 기반으로 노사관계 선진화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 “위기상황일수록 기업들은 근로자 감원에 의존하기 보다는 근로시간 감축, 무급훈련 등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와 고용유지 방안을 모색하고,
 - 근로자들도 위기극복을 위해 임금인상을 자제하고 생산성 향상에 노력하는 등 일정부분 양보하고 배려하는 고통분담의 자세가 필요하며,
 - 정부도 임금직무체계 합리화, 작업조직 혁신, 근로자 직업훈련 확대 등 노동생산성 제고를 위한 고성과 작업장혁신 지원 사업을 적극 전개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붙임 : 2009년도 노사관계 전망 및 정책수요조사 결과

<붙임 1>

'09년도 노사관계 전망 및 정책수요조사 결과

1. 2009년 노사관계 및 경제상황 전망

<1> '09년도 노사관계 전망

- '08년에 비해 '09년 노사관계가 '불안할 것'이라는 전망이 높게 나타남(전체 5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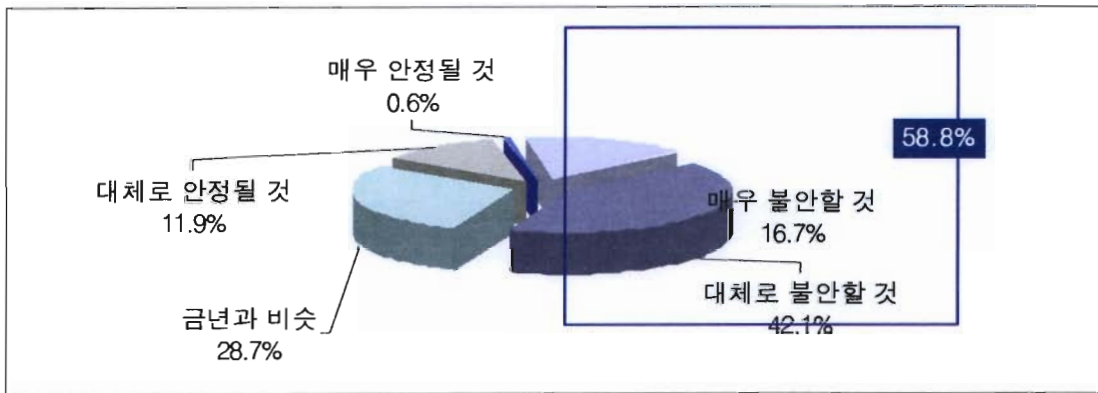


그림 1) 2008년 대비 2009년 노사관계 전망 (전체)

- 조사대상별로는 노측(66.2%)이 사측(51.4%)에 비해 보다 더 불안할 것으로 전망

< 2008년 대비 2009년 노사관계 전망 (조사대상별) >

(단위 : %)

구분	사례수	불안할 것			비슷할 것	안정될 것		
		매우	대체로	소계		대체로	매우	소계
전체	1,000	16.7	42.1	58.8	28.7	11.9	0.6	12.5
노측	500	20.8	45.4	66.2	23.8	9.2	0.8	10.0
사측	500	12.6	38.8	51.4	33.6	14.6	0.4	15.0

- 주요 업종별로는 노사 모두 금융보험, 교육서비스, 전기·가스·수도 업종 등에서 특히 불안할 것으로 전망

< 노사관계 불안 응답 비중 (업종별) >

(단위 : %)

구 분	불안할 것으로 응답한 비중					
	전 체	순위	노 측	순위	사 측	순위
농림어업, 광업	50.0		50.0		50.0	
제조업	58.8	(6)	70.3	(5)	47.3	
건설업	52.6		50.0		55.3	(6)
전기, 가스, 수도	64.3	(4)	71.4	(4)	57.1	(5)
도/소매, 음식/숙박	45.7		53.2		38.3	
운수/통신	56.3		64.1		48.4	
금융 보험	76.3	(1)	84.2	(2)	68.4	(1)
부동산 임대, 사업서비스	63.8	(5)	66.7	(6)	60.9	(3)
교육서비스	70.5	(2)	81.8	(3)	59.1	(4)
보건 및 사회복지	56.3		50.0		62.5	(2)
오락/문화/운동 관련 서비스	65.4	(3)	100.0	(1)	30.8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	56.3		62.5		50.0	

- 사업체 규모별로는 전체적으로 대규모 기업일수록 불안할 것으로 전망

< 노사관계 불안 응답 비중 (사업체 규모별) >

(단위 : %)

구 분	불안할 것으로 응답한 비중		
	전체	노 측	사 측
100~299인	57.2	66.0	48.4
300~999인	65.0	67.5	62.5
1,000인 이상	65.9	65.0	66.7

<1-1> '08년 대비 '09년 노사관계를 불안할 것으로 전망한 이유

□ '08년 대비 '09년 노사관계를 불안할 것으로 전망한 588명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

- '경기침체에 따른 구조조정 등 고용불안 심화' 때문이라는 의견이 79.1%로 가장 많았으며
- 그 다음으로 '임금체불로 인한 노사갈등'(9.4%), '복수노조/전임자 등 노사관계 법개정을 둘러싼 노사정 갈등'(7.0%), '비정규직 문제를 둘러싼 노사갈등'(4.6%) 순으로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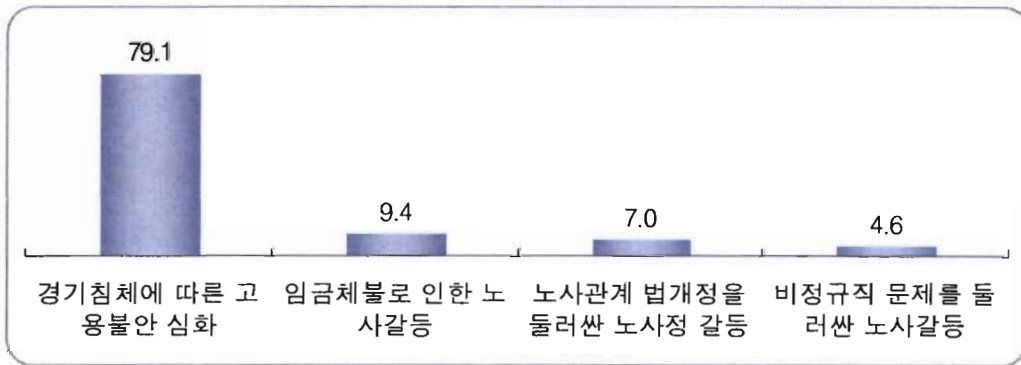


그림 1-1) '08년 대비 '09년 노사관계를 불안할 것으로 전망한 이유 (전체)

- 조사대상별로는 사측(85.2%)이 노측(74.3%)보다 경기침체에 따른 고용불안 심화를 노사관계 불안 요인으로 많이 응답

< 노사관계 불안 전망 이유 >

(단위 : %)

구 분	전체 (588명)	노측 (331명)	사측 (257명)
계	100.0	100.0	100.0
경기침체에 따른 고용불안 심화	79.1	74.3	85.2
임금체불로 인한 노사갈등	9.4	10.3	9.7
노사관계 법 개정을 둘러싼 노사정 갈등	7.0	9.1	2.7
비정규직 문제를 둘러싼 노사갈등	4.6	6.3	2.3

- 주요 업종별로는 노사 모두 전기·가스·수도, 건설업, 운수·통신, 제조업 분야에서 고용불안을 노사관계 불안 요인으로 많이 응답

< 고용불안 심화를 노사관계 불안 이유로 응답한 비중 (업종별) >

(단위 : %)

구 분	고용불안 심화를 노사관계 불안이유로 응답한 비중					
	전 체		노 측		사 측	
		순위		순위		순위
농림어업, 광업	66.7		33.3		100.0	(1)
제조업	79.9	(6)	75.0	(6)	87.2	(5)
건설업	97.5	(2)	100.0	(1)	95.2	(3)
전기, 가스, 수도	100.0	(1)	100.0	(1)	100.0	(1)
도/소매, 음식/숙박	81.4	(5)	84.0	(5)	77.8	
운수/통신	88.9	(3)	85.4	(4)	93.5	(4)
금융 보험	75.9		75.0	(6)	76.9	
부동산 임대, 사업서비스	73.9		63.8		84.9	(6)
교육서비스	77.4		72.2		84.6	
보건 및 사회복지	44.4		25.0		60.0	
오락/문화/운동 관련 서비스	64.7		61.5		75.0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	88.9	(3)	100.0	(1)	75.0	

- 사업체 규모별로는 전체적으로 소규모 기업일수록 고용불안을 노사관계 불안요인으로 많이 응답

< 고용불안 심화를 노사관계 불안 이유로 응답한 비중 (사업체 규모별) >

(단위 : %)

구 분	고용불안 심화를 노사관계 불안이유로 응답한 비중		
	전체	노 측	사 측
100~299인	80.5	74.6	88.6
300~999인	76.0	75.9	76.0
1,000인 이상	66.7	61.5	71.4

<2> '09년도 경제상황 전망

- 전체적으로 '09년도 경제상황이 '98년 IMF 시절에 비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높게 나타남(전체 6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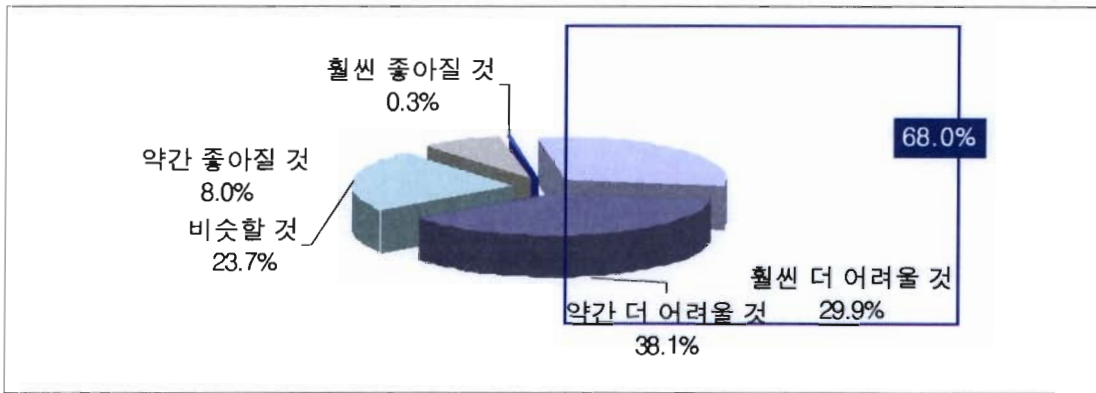


그림 2) '09년도 경제상황 전망 (전체)

- 조사대상별로는 노측(73.0%)이 사측(63.0%)에 비해 어려울 것으로 전망

< '98년 IMF 대비 '09년 경제상황 전망 (조사대상별) >

(단위 : %)

구분	사례수	더 어려울 것			비슷할 것	더 좋아질 것		
		훨씬	약간	소계		약간	훨씬	소계
전체	1,000	29.9	38.1	68.0	23.7	8.0	0.3	8.3
노측	500	32.0	41.0	73.0	19.2	7.8	0.0	7.8
사측	500	27.8	35.2	63.0	28.2	8.2	0.6	8.8

- 주요 업종별로는 노사 모두 제조업, 보건 및 사회복지, 건설 업종 등에서 '09년 경제상황이 더 어려울 것으로 전망

< '09년 경제상황이 어려울 것으로 응답한 비중 (업종별) >

(단위 : %)

구 분	어려울 것으로 응답한 비중					
	전 체	노 측		사 측		
		순위	순위	순위	순위	
농림어업, 광업	58.3		66.7		50.0	
제조업	74.5	(1)	77.6	(1)	71.5	(2)
건설업	67.1	(5)	73.7	(4)	60.5	(6)
전기, 가스, 수도	64.3	(6)	57.1		71.4	(3)
도/소매, 음식/숙박	57.4		59.6		55.3	
운수/통신	67.2	(3)	75.0	(3)	59.4	
금융 보험	60.5		68.4		52.6	
부동산 임대, 사업서비스	67.2	(3)	77.0	(2)	57.5	
교육서비스	63.6		63.6		63.6	(4)
보건 및 사회복지	72.9	(2)	70.8	(5)	75.0	(1)
오락/문화/운동 관련 서비스	53.8		69.2	(6)	38.5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	62.5		62.5		62.5	(5)

○ 사업체 규모별로는 전체적으로 1,000인 이상, 100~299인 이하, 300~999인 이하 순으로 어려울 것으로 전망

< '09년 경제상황이 어려울 것으로 응답한 비중 (사업체 규모별) >

(단위 : %)

구 분	어려울 것으로 응답한 비중		
	전체	노측	사측
100~299인	68.5	74.0	62.9
300~999인	64.4	66.3	62.5
1,000인 이상	73.2	80.0	66.7

<3> '09년 고용불안의 사회문제화 전망

- '09년에 기업 구조조정으로 인한 고용불안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할 것이라는 전망에 압도적 다수가 동의(전체 83.3% : 노측 82.6%, 사측 8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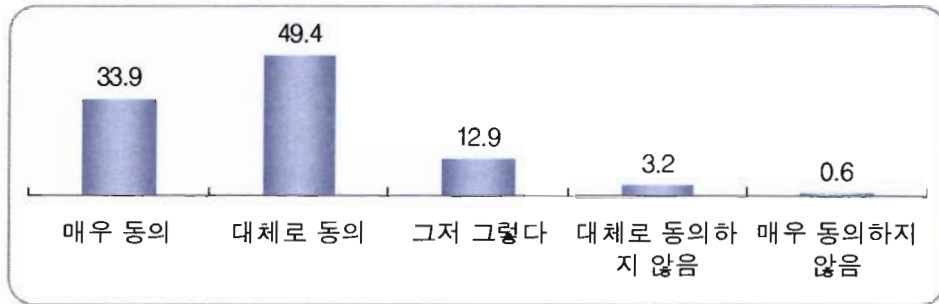


그림 3) '09년도 고용불안의 사회문제화 전망 (전체)

- 주요 업종별로는 노사 모두 기타 공공·수리·개인서비스, 금융보험, 교육서비스 업종에서 고용불안이 심각한 사회 문제화 될 것이라고 응답

< 고용불안의 사회문제화 전망에 대한 동의 비중 (업종별) >

(단위 : %)

구 분	동의하는 것으로 응답한 비중					
	전 체	순위	노 측	순위	사 측	순위
농림어업, 광업	66.7		66.7		66.7	
제조업	82.7		79.4		86.1	(5)
건설업	81.6		71.1		92.1	(3)
전기, 가스, 수도	85.7	(5)	100.0	(1)	71.4	
도/소매, 음식/숙박	74.5		76.6		72.3	
운수/통신	84.4		90.6	(4)	78.1	
금융 보험	92.1	(2)	100.0	(1)	84.2	(6)
부동산 임대, 사업서비스	87.4	(4)	86.2		88.5	(4)
교육서비스	90.9	(3)	86.4	(6)	95.5	(2)
보건 및 사회복지	75.0		75.0		75.0	
오락/문화/운동 관련 서비스	84.6	(6)	92.3	(3)	76.9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	93.8	(1)	87.5	(5)	100.0	(1)

<4> '09년 파업 전망

- 전체적으로 '08년도에 비해 '09년도에 노동조합의 파업이 '증가' 또는 '비슷'할 것이라는 불안 전망(69.7%)이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30.3%)에 비해 우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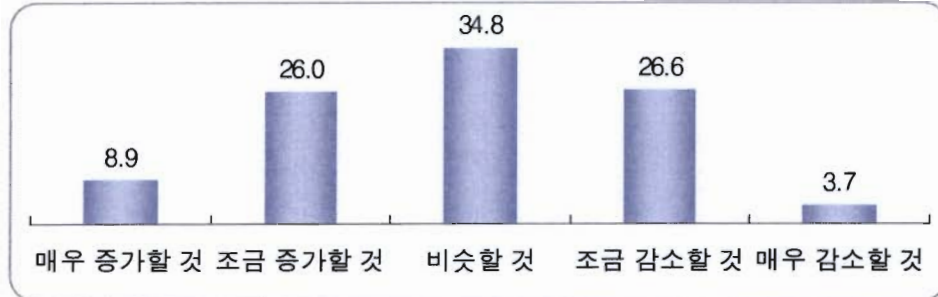


그림 4) '09년도 파업 전망 (전체)

- 조사대상별로는 노사 모두 파업이 증가 또는 비슷할 것이라는 불안 전망이 우세(노 70.8%, 사 68.6%)

< 2008년 대비 2009년 파업 (조사대상별) >

(단위 : %)

구분	사례수	증가할 것			비슷할 것	감소할 것		
		매우	조금	소계		조금	매우	소계
전체	1,000	8.9	26.0	34.9	34.8	26.6	3.7	30.3
노측	500	10.2	26.8	37.0	33.8	26.6	2.6	29.2
사측	500	7.6	25.2	32.8	35.8	26.6	4.8	31.4

- 주요 업종별로는 노사 모두 오락·문화·운동 관련 서비스, 금융보험, 전기·가스·수도, 건설업종에서 파업이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

< '08년 대비 '09년도 파업 증가 응답 비중 (업종별) >

(단위 : %)

구분	증가할 것으로 응답한 비중					
	전체		노측		사측	
	비중	순위	비중	순위	비중	순위
농림어업, 광업	41.7	(6)	16.7		66.7	(1)
제조업	29.1		33.9		24.2	
건설업	47.4	(4)	39.5	(6)	55.3	(2)
전기, 가스, 수도	50.0	(3)	57.1	(3)	42.9	(6)
도/소매, 음식/숙박	31.9		31.9		31.9	
운수/통신	28.9		35.9		21.9	
금융 보험	60.5	(2)	68.4	(2)	52.6	(3)
부동산 임대, 사업서비스	33.3		27.6		39.1	
교육서비스	36.4		50.0	(4)	22.7	
보건 및 사회복지	37.5		41.7	(5)	33.3	
오락/문화/운동 관련 서비스	61.5	(1)	76.9	(1)	46.2	(5)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	43.8	(5)	37.5		50.0	(4)

2. 경제위기 상황 下 노사정의 역할

<1> 노사의 상호 양보 필요성 (사 : 고용안정, 노 : 임금인상 자제)

- 경제위기 상황에서 사측은 고용안정에 힘쓰고 노측은 임금인상을 자제하는 등 상호 양보해야 한다는 견해에 압도적 다수가 찬성 입장(전체 8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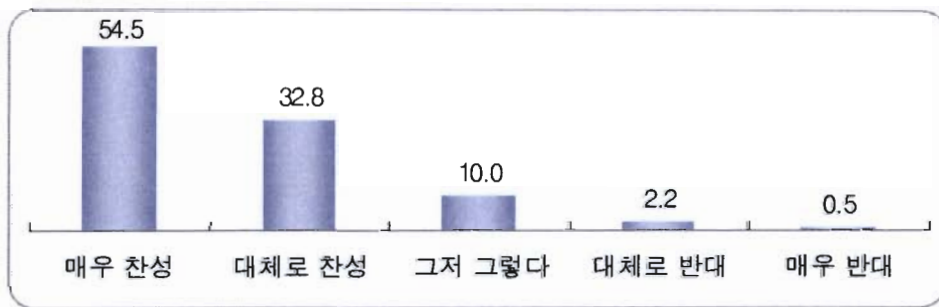


그림 5) 사측(고용안정)과 노측(임금인상 자제)의 상호 양보 필요성 (전체)

- 조사대상별로는 노측(85.2%)과 사측(89.4%) 모두 상호양보 필요성에 찬성

< 노사 상호 양보 필요성 (조사대상별) >

(단위 : %)

구분	사례수	찬성			그저 그렇다	반대		
		매우	대체로	소계		대체로	매우	소계
전체	1,000	54.5	32.8	87.3	10.0	2.2	0.5	2.7
노측	500	51.2	34.0	85.2	10.6	3.4	0.8	4.2
사측	500	57.8	31.6	89.4	9.4	1.0	0.2	1.2

<2> '09년도 바람직한 임금수준

□ '08년 대비 '09년도 바람직한 임금 수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08년 수준으로 동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59.1%로 가장 높았으며

○ '상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은 35.0%, '삭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은 5.9%로 나타남

※ '상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중에서도 '2008년 대비 5% 이내 상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28.1%로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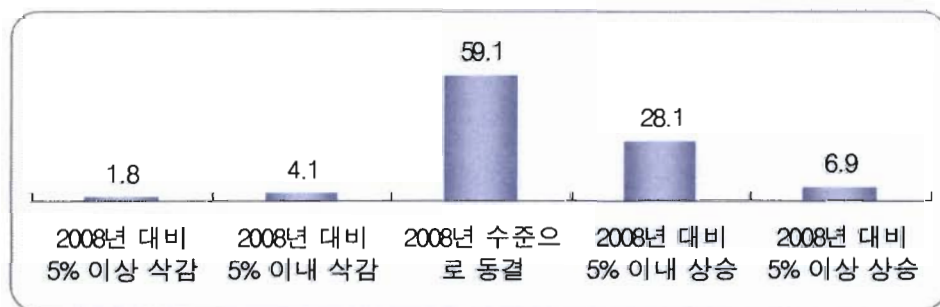


그림 6) '09년도 바람직한 임금 수준 (전체)

○ 조사대상별로는 노측과 사측 모두 동결 또는 삭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높음(노 60.0%, 사 70.0%)

< 노사 상호 양보 필요성 (조사대상별) >

(단위 : %)

구분	사례수	삭감			동결	상승		
		5% 이상 삭감	5% 이내 삭감	소계		5% 이내 상승	5% 이상 상승	소계
전체	1,000	1.8	4.1	5.9	59.1	28.1	6.9	35.0
노측	500	1.4	4.4	5.8	54.2	31.8	8.2	40.0
사측	500	2.2	3.8	6.0	64.0	24.4	5.6	30.0

○ 주요 업종별로는 노사 모두 건설업, 운수/통신 업종에서 동결 또는 삭감 의사가 강한 반면

< '08년 대비 '09년도 임금동결 또는 삭감 응답비율 (업종별) >

(단위 : %)

구 분	동결 또는 삭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비중					
	전 체		노 측		사 측	
		순위		순위		순위
농림어업, 광업	58.3		50.0		66.7	
제조업	65.2		57.6		72.8	
건설업	77.7	(2)	81.6	(2)	73.7	(6)
전기, 가스, 수도	42.8		28.6		57.2	
도/소매, 음식/숙박	53.2		55.4		51.0	
운수/통신	67.2	(5)	59.4	(5)	75.0	(4)
금융 보험	47.4		36.8		57.9	
부동산 임대, 사업서비스	65.0		65.5	(3)	64.4	
교육서비스	70.4	(3)	54.5		86.4	(2)
보건 및 사회복지	66.6	(6)	58.4	(6)	75.0	(4)
오락/문화/운동 관련 서비스	69.2	(4)	61.5	(4)	76.9	(3)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	93.8	(1)	87.5	(1)	100.0	(1)

- 전기·가스·수도, 금융보험 업종은 타 업종에 비해 임금 상승(인상) 의사가 높은 편임

< '08년 대비 '09년도 임금상승 응답비율 (업종별) >

(단위 : %)

구 분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비중					
	전 체		노 측		사 측	
		순위		순위		순위
농림어업, 광업	41.7	(4)	50.0	(3)	33.3	(5)
제조업	34.8	(6)	42.4	(6)	27.3	(6)
건설업	22.4		18.4		26.3	
전기, 가스, 수도	57.1	(1)	71.4	(1)	42.9	(2)
도/소매, 음식/숙박	46.8	(3)	44.7	(5)	48.9	(1)
운수/통신	32.8		40.6		25.0	
금융 보험	52.6	(2)	63.2	(2)	42.1	(3)
부동산 임대, 사업서비스	35.1	(5)	34.5		35.6	(4)
교육서비스	29.5		45.5	(4)	13.6	
보건 및 사회복지	33.3		41.7		25.0	
오락/문화/운동 관련 서비스	30.8		38.5		23.1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	6.3		12.5		0	

<3> 현 상황의 기업 유지가 어려울 때 바람직한 기업 대응방식

□ 경기악화로 종업원 규모, 임금수준을 유지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바람직한 기업의 대응방식으로는

- 노사 모두 '실질적인 임금감소를 동반한 근로시간 단축(1순위)', '일정 인원에 대해 무급 순환 휴직과 동시에 직업훈련 실시'(2순위), '명목임금 삭감'(3순위), '근로자 감원'(4순위)순으로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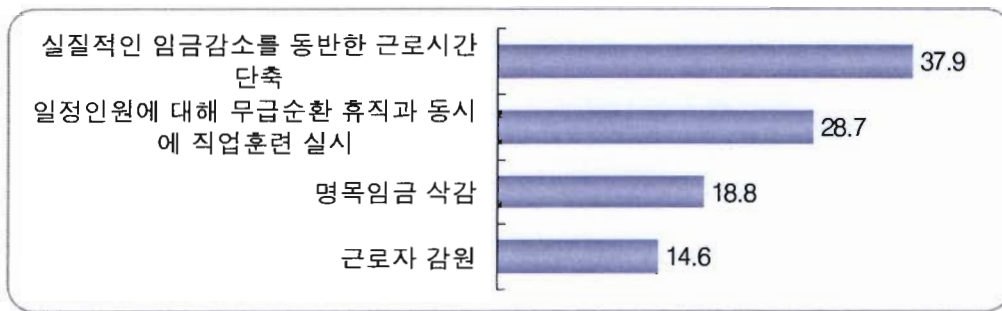


그림 7) 현 상황의 기업 유지가 어려울 때 바람직한 기업대응방식 (전체)

< 바람직한 기업대응방식 (조사대상별) >

(단위 : %)

구 분	전체 (1,000명)	노측 (500명)	사측 (500명)
계	100.0	100.0	100.0
실질적인 임금감소를 동반한 근로시간 단축	37.9	38.4	37.4
일정인원에 대해 무급순환 휴직과 동시에 직업훈련 실시	28.7	30.0	27.4
명목임금 삭감	18.8	20.0	17.6
근로자 감원	14.6	11.6	17.6

<4> 노사관계 선진화의 중요성

□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에 대해 **노사 모두 중요한 것으로 인식**(각 세부정책에 대해 최소 60% 이상이 중요한 것으로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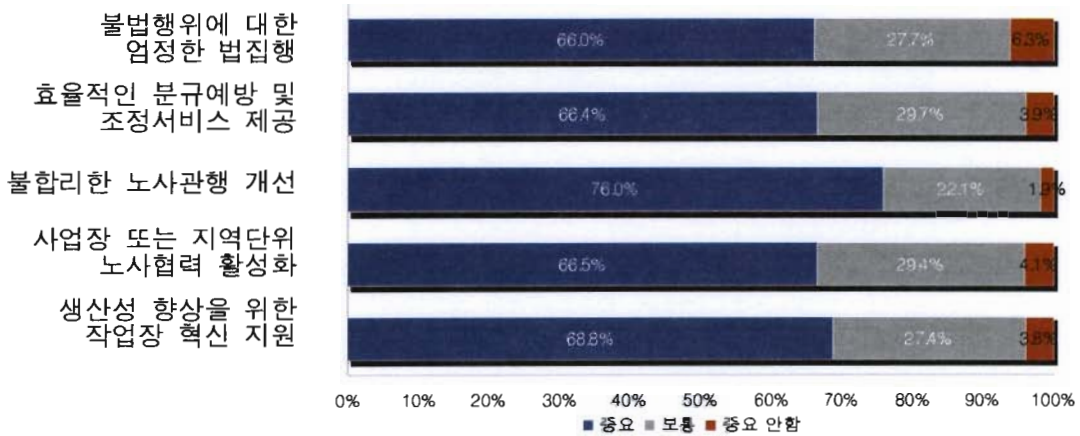


그림 8) 노사관계 선진화 정책의 중요성

□ **노사 모두 불합리한 노사관행 개선을 가장 중요하게 꼽았** 으며(노측 79.2%, 사측 72.8%가 중요하다고 응답)

- 다음으로 사측은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68.8%)**,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작업장 혁신(64.6%)** 순으로 중요하게 인식
- 한편 노측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작업장 혁신(73.0%)**, **사업장·지역 단위 노사협력 활성화(71.0%)** 순으로 중요하게 인식

<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세부 정책과제별 중요도 인식 >

(단위 : %)

세 부 정 책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		
	전체	노측	사측
불합리한 노사관행 개선	76.0	79.2	72.8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작업장 혁신	68.8	73.0	64.6
사업장·지역단위 노사협력 활성화	66.5	71.0	62.0
효율적인 분규예방 및 조정서비스 제공	66.4	69.4	63.4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	66.0	63.2	68.8

<5>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의 역할과 책임 (우선순위)

- 전체적으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노사 협력 촉진·직업능력개발 지원 등 정부의 노력’이라는 의견이 51.8%로 가장 많았으며
- 다음으로 ‘고용안정 보장·투자 활성화 등 사측의 노력’(32.2%), ‘임금인상 자제·생산성 향상 등 노측의 노력’(16.0%)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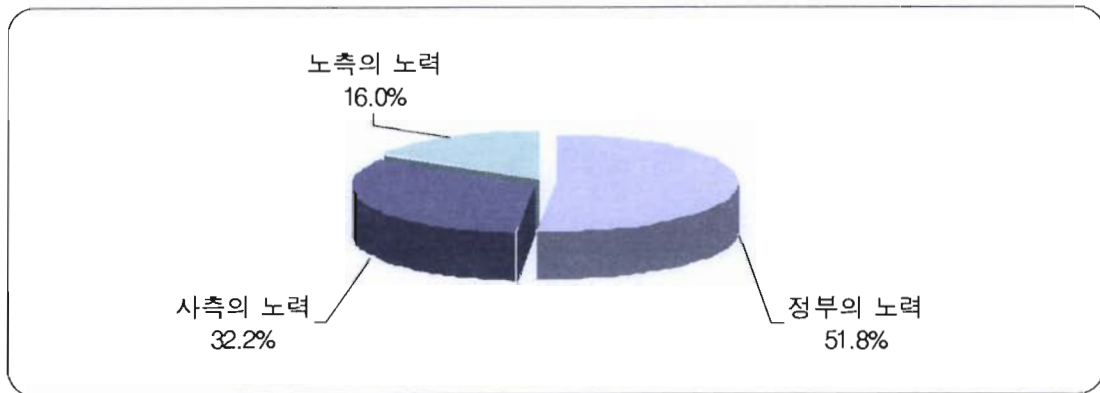


그림 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의 역할 (전체)

- 한편 사측 스스로도 노측의 노력에 비해 사측의 노력이 중요하고 솔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보임

<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의 역할과 책임 >

(단위 : %)

구분	계	정부의 노력 (노사협력촉진, 직업능력개발 지원 등)	사측의 노력 (고용안정 보장, 투자활성화 등)	노측의 노력 (임금인상 자제, 생산성 향상 등)
전체	100.0	51.8	32.2	16.0
노측	100.0	52.6	33.4	14.0
사측	100.0	51.0	31.0	18.0